

2012년도 국가직 7급 국어 해설

오대혁(국문학 박사, 이그잼고시학원)

<평가> :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국문법 부분에서는 단어와 품사 등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면 들여다보았을 문제가 출제되었고, 띄어쓰기와 한글 맞춤법 등도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한자성어와 한자도 작년처럼 많이 출제되지도 않았고, 어법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문학 작품은 시 감상 능력이나 표현 기법이 출제되었고, 논리적인 글도 그리 길지 않은 지문을 제시하였다.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 문제들이었다. 90점 이상의 고득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꼼꼼하게 여러 분야들을 들여다보지 않은 수험생들은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른다. 세부적인 내용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함을 보여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1.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모두 바른 것은?

- ① 꽃잎이 한잎∨두잎 강물에 떠내려가∨버렸다.
- ② 이곳에서 주문할 물품의 개수는 스물내지∨서른 정도입니다.
- ③ 부장∨겸∨대외협력실장을 맡고 계신 김부장님을 모셨습니다.
- ④ 김∨동식∨박사께서는 열심히 노력하신∨만큼 큰 상을 받게 되셨다.

1. ①

[한글맞춤법-띄어쓰기]

*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한∨잎∨두∨잎’이라고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잎∨두잎’도 허용된다.

*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이긴 하되, ‘떠내려가’가 합성 동사인 까닭에 ‘떠내려가∨버렸다’를 붙여 써서는 안 된다.

<오답 피하기>

② ‘이곳’은 합성어로 인정되어 붙여 써야 옳다. *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스물∨내지∨서른’이라 써야 옳다.

③ 성명 또는 성이나 이름 뒤에 붙는 호칭어나 관직명(官職名) 등은 고유 명사와 별개의 단위이므로 띄어 쓴다. 호나 자 등이 성명 앞에 놓이는 경우도 띄어 쓴다. 따라서 ‘부장∨겸∨대외협력실장’이라 쓰고, ‘김∨부장님’이라 써야 옳다.

④ 성과 이름은 붙여 써야 하고, 호칭어나 관직명은 띄어 써야 하므로 ‘김동식∨박사’라고 써야 옳다. ‘노력하신∨만큼’은 의존명사의 띄어쓰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 2. 밑줄 친 관용 표현 중 사용이 적절치 않은 것은?

- ① 낙숫물이 댛들을 뚫는다는데, 계속 노력하면 꼭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 ② 아이고, 너같이 느려서야 뭘 하겠니? 갓 쓰고 나가자 파장 하겠다.
- ③ 구운 게도 다리를 떼고 먹으라는데, 무슨 일이든 마음 놓지 말고 확실하게 하렴.
- ④ 설 쉼 무 같이 야무지고 똑똑하기가 아주 비할 데가 없어.

2. ④

[어휘론-관용어]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할 때는 제시된 표현의 상황을 추리해 보면 답을 찾아내기 쉽다. ‘설 쉼 무’를 생각해 보자. 가을에 뽑아 둔 무가 해를 넘겨 속이 비고 맛이 없어지게 된 것이 ‘설 쉼 무’이다. 그래서 “한창때를 지나 불품없게 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낙숫물이 댛들을 뚫는다. : 작은 힘이라도 끈기 있게 계속하면 큰일을 할 수 있다는 말.
<비슷한 표현>돌도 십 년을 보고 있으면 구멍이 뚫린다, 무쇠도 갈면 바늘 된다, 술개도 오래면 꿩을 잡는다.
- ② 갓 쓰고 나가자 파장 하겠다. : 몹시 행동이 굼뜨다는 뜻과 게으르면 무슨 일이나 성공하기 어렵다.
- ③ 구운 게도 다리를 떼고 먹어라. : 게에 관한 설화에서 비롯된 속담이다. 어떤 효자가 ‘시묘살이’를 하는데, 그 효행이 알려져 사또가 포상상신을 하려고 아전들에게 내사를 시켰다 한다. 그런데 마침 효자가 게를 얻어 구워먹다가 발각이 되어 포상을 받지 못했다 한다. 묘막에 가려면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개울에 놓인 다리를 떼어놓고 게를 구워먹었다면 발각되지 않고 효자로서 이름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여 매사에 방비를 잘하라는 뜻이다. ‘다리’가 ‘게의 다리’가 아닌 겁니다.

문 3.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다른 것은?

- ① 겨울철에는 군고구마가 간식으로 제격이다.
- ② 너는 웬 군소리가 그렇게도 많니?
- ③ 맛있는 음식 때문에 군침이 돈다.
- ④ 군불에 밥 짓기.

3. ①

[형태론-접두사와 어근의 구분]

접두사 ‘군’은 ‘쓸데없는’ 또는 ‘가외로 더한’, ‘덧붙은’의 뜻을 더하여, ‘군소리, 군침, 군불’ 등의 형태로 쓰인다. 그런데 ‘군고구마’의 ‘군’은 ‘굽다’의 활용형인 ‘구운’을 줄여 쓴 경우이다. 정확한 의미로는 ‘불에 구워 익힌 고구마’로 보아야 하므로 합성어에 해당한다.

문 4. 다음 예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너는 학생이므로 그 위험한 일에서 한발 비켜서야 한다.

- ① ‘너’와 ‘그’는 문장 성분은 다르지만 품사는 같다.
- ② 이 문장은 11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 ③ ‘한발’은 ‘한√발’로 띄어 쓰는 것이 맞다.
- ④ ‘위험한’과 같은 품사의 예로, ‘헨 물건’의 ‘헨’을 들 수 있다.

4. ②

[품사론-단어와 품사의 파악]

조사는 단어로 처리하지만, 어미는 단어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서 관건은 ‘한발’이었다. ‘한발’은 “어떤 동작이나 행동이 다른 동작이나 행동보다 시간·위치상으로 약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남을 나타내는 말.”인 부사이다. (만일 “한 발은 들고 한 발로만 뛰다.”와 같은 문장이었다면 답이 달라지게 된다. 이때 ‘발’이 의존명사로 쓰여 ‘한’과 띄어야 하는 경우는 ‘조사’가 붙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다.) 따라서 ‘한발’은 합성어로 하나의 단어로 처리되어야 옳다. 단어를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너/는/ 학생/이므로/ 그/ 위험한/ 일/에서/ 한발/ 비켜서야/ 한다./ (11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다.)

<오답 피하기>

- ① ‘너’는 조사가 붙는 대명사이고, ‘그’는 체언을 수식하는 지시 관형사이다.
- ③ ‘한발’은 합성어로 쓰인 부사이다.(부사는 일반적으로 용언을 수식한다.)
- ④ ‘위험한’은 ‘위험하다’를 기본형으로 하는 형용사이고, ‘헨’은 여기에서 ‘새’와 반대말로 쓰이는 관형사이다.

문 5. 다음 예문에서 밑줄 친 문장 성분을 잘못 파악한 것은?

- 그녀는 ㉠아름다운 꽃을 품에 ㉡가득 안고 왔다.
- 하루 종일 ㉢비가 왔다. ㉣다행히도 마음만은 즐거웠다.

- ① ㉠:관형어
- ② ㉡:부사어
- ③ ㉢:주어
- ④ ㉣:독립어

5. ④

[문장론- 문장성분의 파악]

부사에는 보조사가 붙을 수 있다. ‘다행히’라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는 부사에 보조사 ‘도’가 붙어 쓰인 것이다. 독립어는 ‘칠수야’와 같이 체언에 호격 조사 ‘야, 여’가 붙어서, 또는 ‘아야!’와 같이 감탄사 형태로 이루어진다.

<오답 피하기>

- ① 관형어는 ‘어떤’ 자리에 쓰인다.
- ② 부사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등 참 다양한 자리에 쓰인다. 여기서는 ‘어떻게’ 자리에 쓰였다.

③ 주격 조사 ‘가’ 붙은 주어이다.

문 6. 예문의 밑줄 친 부분과 그 수사(修辭)적 유형이 같은 것은?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 오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옥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 김동명, ‘내 마음은’ 중에서 -

① 아랫목에 모인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屈辱)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② 님의 사랑은 뜨거워

근심 산(山)을 태우고 한(恨) 바다를 말리는데

③ 가려다 오고 오려다 가는 것은 나에게 목숨을 빼앗고 죽음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④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虛空中)에 헤어진 이름이여!

6. ②

[시의 이해 - 표현기법]

제시된 표현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나란히 제시하고 있는 은유법이다. 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근심’을 원관념으로 한 보조관념 ‘산’을, ‘한’을 원관념으로 한 보조관념 ‘바다’를 보여주고 있는 ②이다. 은유법에서 원관념이 작품의 어딘가에는 나타나 있다. 만일 나타나지 않으면 상징이 된다.

<오답 피하기>

① 직유법, ③ 역설법(목숨을 빼앗았는데 죽음을 주지 않는다고 했으니 모순되지요.), ④ 돈호법

문 7. 다음 글을 문맥에 맞게 배열한 것은?

(가) 그뿐 아니라, 자신을 알아주는 이, 즉 지기자(知己者)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버릴 수 있어야 하며, 더불어 은혜는 은혜대로, 원수는 원수대로 자신이 받은 만큼 되갚기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

(나) 무공이 높다고 하여 반드시 협객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원칙에 위배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협이란 사생취의(捨生取義)의 정신에 입각하여 살신성명(殺身成名)의 의지를 실천하는 것, 또는 그러한 실천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다) 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절개와 의리를 숭상하여야 하며, 개인의 존엄을 중시하고 간악함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신의(信義)를 목숨보다도 중히 여길 것도 강조되는데, 여기서의 신의란 상대방을 향한 것인 동시에 스스로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다.

(라) 무와 더불어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협'의 개념이다. 무협 소설에서 문제가 되는 협이란 무덕(武德), 즉 무인으로서의 덕망이나 인격과 관계가 되는 것으로, 이는 곧 무공 사용의 전제가 되는 기준 내지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① (라)-(가)-(다)-(나)

② (라)-(다)-(가)-(나)

③ (나)-(다)-(라)-(가)

④ (나)-(다)-(가)-(라)

7. ②

[쓰기- 단락의 연결]

(라)에서 “협이란 무덕(武德), 즉 무인으로서의 덕망이나 인격과 관계가 되는 것”이라 했다. 덕망이나 인격과 관련된 진술은 (다) 글로 이어져 ‘절개와 의리’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글이 신의를 강조하였고, (가) 글에서 ‘그뿐 아니라’라고 하여 ‘지기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 글은 “무공이 높다고 하여 반드시 협객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이라 하여 앞의 진술들을 총괄하고 있어 마지막에 놓이는 것이 합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문 8. 다음 시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 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 정호승, '봄 길' -

- ①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② 부정적인 상황에 한탄하지 않고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③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 버리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④ 사소한 사물이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을 벗어나 활달한 태도가 드러난다.

8. ②

[시의 이해-정서의 파악]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고,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강물과 새가 멈추고 돌아오지 않으며, 꽃잎이 흩어지는 부정적인 상황이 되어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는 이들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 이를 잘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 “부정적인 상황에 한탄하지 않고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임은 명확하다.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은 것이다.

문 9. 번역 투의 표현이 아닌 문장으로만 짝지은 것은?

- ① ○ 나는 부모님에 의해 예의 바르고 친절한 아이로 자랐다.
○ 그에게 있어서 가정이란 자고 나가는 곳 외에 아무 의미가 없다.
- ② ○ 이번 방학에 제주도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학내 폭력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에게는 자숙하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 ③ ○ 내 고향에는 아직도 많은 친척들이 살고 있다.
○ 이런 짓은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 ④ ○ 이런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오늘 조회 시간에는 학교 문제에 대한 교장 선생님의 솔직한 해명이 있었다.

9. ③

[어법-번역 투 표현의 파악]

“나의 살던 고향에 나의 친척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여 관형격 조사 ‘의’를 잘못 쓰는 경우를 고쳐 놓은 꼴이다. 그리고 뒤의 문장은 ‘절대로’라는 부사어에 걸맞지 않게 ‘해야 한다’와 같은 꼴로 잘못 쓸 수 있는 문장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에 의해’와 ‘-에게 있어서’가 번역 투 표현이다.
- ② ‘계획을 가지고 있다’를 ‘계획이 있다.(계획이다.)’로, ‘시간을 필요로 한다.’를 ‘시간이 필요하다.’로 고치는 것이 좋다.
- ④ ‘강조해야 한다.’와 ‘학교 문제에 대해 교장 선생님이 솔직하게 해명했다.’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

문 10.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만 나열된 것은?

- ① 웃니, 찻집, 두렛일
- ② 굵직하다, 넓직하다, 높다랗다
- ③ 그렇잖다, 만만찮다, 적잖다
- ④ 양심(良心), 유행(流行), 성공율(成功率)

10. ③

‘하다’를 붙일 수 없거나, 안울림소리로 끝나는 경우는 ‘잖다’를 쓰고, 두 부분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는 ‘찮다’를 쓴다.

<오답 피하기>

- ① ‘윗니’라고 써야 옳다. ‘위, 아래’로 구분이 되는 경우는 ‘윗’으로 쓰고, 치아를 뜻하는 ‘이’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 ‘니’로 쓴다.
- ② ‘널찍하다’라고 써야 옳다. ‘ㄹ’로 발음되는 ‘널찍하다, 알따랗다’와 같은 경우이다.
- ④ ‘성공률’이라 써야 옳다. ‘모음’이나 ‘ㄴ’ 받침으로 쓴 끝난 경우에 ‘율, 열’을 쓴다.

문 11. 다음 작품에서 화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영고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응혜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 티끌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오.
- 정약용, ‘보리타작(打麥行)’-

- ① 농촌에서 노동하는 삶
- ② 벼슬을 하는 지식인의 삶
- ③ 육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룬 삶
- ④ 모두가 하나 되는 공동체적인 삶

11. ③

[고전문학- 시의 내용 파악]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

고 있으리요.”라는 표현을 통해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이룬 삶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성 : 기, 승, 전, 결의 4단 구성. 선경후정(先景後情)의 시상 전개
기(1-4행) - 노동하는 농민의 건강한 삶의 모습
승(5-8행) - 보리 타작하는 마당의 정경
전(9-10행) - 정신과 육체가 합일된 노동의 기쁨
결(11-12행) - 관직에 몸담은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성격: 사실적, 반성적, 평민적
*배경 사상 : 실사구시의 실학사상
*주제: 농민들의 보리타작의 모습을 보고, 그 노동에서 얻는 즐거움을 보고 자신의 삶을 반성 혹은 노동에서 얻는 즐거움, 농민들의 보리 타작과 거기서 얻는 즐거움
* 의의 : 사실성과 현장성이 평민적인 시어의 구사와 함께 잘 어울리는 조선 후기 한시의 전형이다. 다산(茶山)의 중농(重農) 사상과 현실주의 시 정신을 잘 나타내는 작품이다.

문 12. 다음 예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우리말다운 표현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글 속의 문장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우선이 되는 것은 문장 내에서 서로 호응하는 성분 간의 관계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 ① 철수는 지금 당장 유학을 가려고 했지만,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었다.
- ② 문화 결손은 교육학에서, 어린이가 자라면서 어떤 문화적인 환경에 접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잘못이다.
- ③ 2년 전 당산의 나무를 건드린 이 마을 사람 하나는 산사태로 목숨을 잃었고, 올해에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 ④ 보안과 관계된 사항에는 각종 비문뿐만 아니라 부대 위치 및 지휘관의 신상, 활동 등도 포함된다.

12. ④

[어법- 문장성분의 호응]

“~사항에 ~뿐만 아니라, ~도 포함된다.”라는 문장 구조로 문제가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유학을 가려고 했지만, ~ 하지 못했다.’라는 문장 구조를 취해야 옳다.
- ② ‘문화적인 환경을 접하지 못한 데서’라고 써야 옳다. ‘접하다’는 ‘~을/를’이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 ③ ‘~마을 사람 하나는 ~, 올해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문 13. 다음 예문에서 이완의 처지를 반영한 사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변 씨는 이완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보고 이완이 몸소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허생은 못들은 체하고, “당신 차고 온 술병이나 어서 이리 내놓으시오.” 했다.

그리하여 즐겁게 술을 들이켜는 것이었다. 변 씨는 이완을 밖에 오래 서 있게 하는 것이 민망해서 자주 말하였으나, 허생은 대꾸도 않다가 야심해서 비로소 손을 부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완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이완이 몸 둘 곳을 몰라 하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저으며 막았다.

- ① 門前薄待, 坐不安席
- ② 狐假虎威, 威風堂堂
- ③ 優柔不斷, 騎虎之勢
- ④ 虎視眈眈, 威風堂堂

13. ①

[한자성어]

이완이 찾아왔어도 늦은 시간까지 말 한마디 붙이지 않은 것에서 ‘문전박대(門前薄待)’라는 한자성어를 떠올릴 수 있고, “이완이 몸 둘 곳을 몰라 하며”라는 표현을 통해 ‘좌불안석(坐不安席)’이라는 한자성어를 떠올릴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호가호위, 위풍당당
- ③ 優(넉넉할 우) 柔(부드러울 유) 不(아닌가 부{아닐 불, 클 비}) 斷(끊을 단)
기호지세(騎虎之勢) : 호랑이를 탄 기세. 내리지도 계속 타고 있을 수도 없는 형세이다.
- ④ 호시탐탐, 위풍당당

문 14. 다음 고사성어와 그 뜻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姑息之計 : 멀리 보고 심사숙고한 계획
- ② 不刊之書 : 영구히 전하여 없어지지 않을 만한 좋은 책
- ③ 十日之菊 : 국화가 최고로 개화한 상황으로 어떤 일의 절정
- ④ 浮雲之志 : 하늘에 떠도는 구름처럼 엇매임 없이 자유로운 마음

14. ②

‘불간지서’는 다시는 간행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어 영구히 전하여 없어지지 않을 만한 좋은 책을 말하게 된다.

<오답 피하기>

- ① 고식지계: 임시방편을 뜻하는 한자성어.
- ③ 십일지국: 한창때인 9월 9일이 지난 9월 10일의 국화라는 뜻으로, 이미 때가 늦은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부운지지: 뜬구름과 같은 뜻이다. 뜬구름과 같은 한때의 부귀공명을 바라는 마음.

문 15. 다음 예문들을 문맥이 통하도록 배열한 것은?

ㄱ. 하지만 덴마크의 왕 프레데릭 3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면서 그것을 세 번 반복해 달라고 요청했다.
ㄴ.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이 새로운 매체의 효과가 ‘공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ㄷ. 발겐슈텐이 코펜하겐에서 ‘마술 환등’을 시연했을 때의 일이다.
ㄹ. 신하들 앞에서 군왕으로서 용기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ㅁ. 어둠 속에서 갑자기 해골이 등장하는 모습에 모두 겁을 집어 먹었다.

- ① ㄷ-ㄹ-ㄱ-ㄴ-ㄱ
- ② ㄷ-ㄴ-ㄹ-ㄱ-ㄱ
- ③ ㄹ-ㄷ-ㄴ-ㄱ-ㄱ
- ④ ㄹ-ㄷ-ㄱ-ㄴ-ㄱ

15. ①

[쓰기 - 문장의 연결]

각 문장의 핵심어들을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ㄷ. ‘마술 환등’의 시연 → ㅁ. ‘모두 겁을 집어 먹었다.’ → ㄱ. ‘프레데릭 3세’는 태연한 척하면서 반복을 요청. → ㄹ. 용기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 → ㄴ. 새로운 매체의 효과가 ‘공포’에 있었음.

문 16. 다음 중 차별적 언어표현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 ① 그것은 학교에서 학부형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할 일인 것 같군요.
- ② 이 소설은 작가의 처녀작으로, 당시 문단의 호응이 매우 컸던 작품입니다.
- ③ 살구 색 옷은 잘못 입으면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므로, 주의해서 입어야 합니다.
- ④ 복지 정책이 날로 더 발전하고 있으니, 미망인의 문제도 곧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16. ③

[어휘론-차별적 언어표현]

언어표현에서 인종 차별이나 남녀 차별 따위를 드러내고 있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이다. ‘살구 색’을 ‘살색’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종 차별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학부형(學父兄)’이라는 표현에서 남녀 차별을 보여주고 있다.
- ② ‘처녀작(處女作)’이라는 표현에서 남녀 차별이 드러난다.
- ④ ‘미망인(未亡人)’이라는 표현은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라 번역되어 남편을 잃은 여인은 따라 죽었어야 할 인간으로 말하고 있는 꼴이다.

문 17. 다음 예문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컬었다. 시인 김현승은 자식을 “나의 가장 나아중 지닌 것”이라 했다. 암에 걸린 엄마가 뱃속 아기를 살리려고 치료를 포기하기도 한다. 아기를 낳고 곧 세상을 뜨면서도 엄마 된 행복에 겨워한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모성과 부성에 대한 믿음까지 버릴 순 없다.

- ① ㉠ : 悲劇 ② ㉡ : 慘賊
③ ㉢ : 喪命 ④ ㉣ : 刻薄

19. ③

[한자- 문맥에 맞는 한자의 표기]

‘천지가 캄캄한’이라는 표현을 통해 ‘목숨 명(命)’이 부적절함을 알고 ‘喪(죽을 상) 明(밝을 명)’이 옳음을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비극, ② 참척(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슬픔을 가리킨다.), ④ 각박

문 20. 다음 단어들을 넣어 공문서를 작성할 경우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쓰레기 분리 수거, 재활용 폐지(弊紙), 연간 3,000억 원, 외화 낭비, 환경 보호

- ① 우리 국민이 모두 쓰레기 분리 수거에 적극 참여하여 재활용 폐지, 연간 3,000억 원을 수입하지 않으면 외화 낭비와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다.
② 전 국민이 쓰레기 분리 수거에 적극 참여하여 재활용 폐지를 연간 3,000억 원 이상씩 수입하지 않고 외화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다.
③ 국민 모두가 쓰레기 분리 수거에 적극 참여한다면 연간 3,000억 원의 재활용 폐지 수입을 막아 외화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환경 보호의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다.
④ 전 국민이 모두 쓰레기 분리 수거에 적극 참여한다면 연간 3,000억 원에 달하는 재활용 폐지의 수입을 막아 외화 낭비도 경감시키고 환경 보호가 된다.

20. ③

[쓰기 - 문장의 구성]

여러 어구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하나의 문장을 구성할 때 적절한 것을 묻고 있다. 인과적 논리 전개를 고려했어야 한다. 쓰레기 분리 수거가 3000억 원의 재활용 폐지 수입이라는 외화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이는 환경 보호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을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하나의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